

연구논문

## 누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는가? 세대와 교육 수준에 따른 정치 참여 양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이신행\*\* · 서찬석\*\*\*

시민들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를 이루어 낸 한국 정치의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본 연구는 시민들의 투표 참여뿐 아니라 서명, 청원, 집회 등 다양한 정치 참여의 양상에 주목하여, 그들이 연령 및 교육 수준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개인의 높은 교육 수준이 높은 정치 참여로 이어진다는 단선적 예측을 넘어서, 압축적 민주화 과정을 경험한 중장년층과 공고화된 민주주의에서 성장한 청년층 사이에 상이한 양태가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했다. 「사회통합실태조사」의 2022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 수록 투표에 몰두하는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제도정치 바깥의 사회운동 참여에 적극적인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 수준의 경우 여러 형태의 정치 참여에 모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높은 교육 수준의 경우 연령이 높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운동 참여로, 연령이 낮은 이들에게는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이어지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연령 및 교육 수준에 따라 정치 참여의 양태가 변화하는 양상을 드러냄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 정치의 역동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주제어: 교육 수준, 민주주의, 민주화, 사회운동, 연령, 정치 참여

\* 이 논문은 2023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이 논문은 2024년도 중앙대학교 연구년 결과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논문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과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hogwit@cau.ac.kr), 제1저자.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sociochan@cau.ac.kr), 교신저자.

## I. 서론

1987년 민주화를 전후로 한국 정치의 분기점에는 항상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있었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맞선 1960년의 4.19 혁명, 전두환 신군부의 권력 장악에 저항한 1980년의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가능케 했던 1987년의 6.10 민주항쟁에는 모두 시민들과 대학생들의 뜨거운 정치적 관심과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주된 동력이 되었다(홍성태 2017; Kim 2016; Shin 2021). 민주화 이후에도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꾸준히 이어졌을 뿐 아니라 그 의제 역시 훨씬 다변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로 다양한 의제를 내세운 시민단체들이 등장했고, 2016년 촛불 집회는 박근혜 정권의 퇴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 사이에 한국은 신생 민주주의를 넘어, 여당에서 야당으로 여러 차례 권력이 교체되면서도 민주주의 체제 자체는 전복되지 않는 공고화된 민주주의(consolidated democracy)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Shin & Chang 2011; Suh 2019). 나아가, 사회운동 연구자들은 집회와 시위 등의 양태로 나타나는 시민들의 집합행동이 어느새 제도화된 선거에서의 투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정당성 있는 정치 참여의 양태로 인정받는 이른바 ‘사회운동사회(social movement society)’가 도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전누리·신진욱 2024; Meyer & Tarrow 1998; Soule & Earl 2005).

시민들의 다변화된 정치 참여는 한국 정치의 역동적 변화로 이어졌고, 이는 민주주의 체제로의 성공적인 이행과 공고화를 가능케 한 중요한 동인이었다(김선혁·김병국·에키투 2007; Shin 2021). 이와 같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설명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은 정치 참여의 양상을 결정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에 주목해 왔다. 특히 개인의 교육 수준이 정치 참여를 결정짓는 강력한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Marien, Hooghe, & Quintelier 2010; Nie, Junn, & Stehlik-Barry 1996; Willeck & Mendelberg 2022; 김기동·이재묵·이지영 2019; 서현진 2009; 정수현 2012). 연령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어 왔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치 참여에 몰두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갖춰진다는 점, 다만 고령에 접어들면서 정치 참여의 강도는 떨어진다는 점이 확인되어 왔다(Nie, Verba, and Kim 1978). 다만 제도권 바깥의 정치 참여에 주목하는 사회운동 이론에서는 생애사에 있어 청년의 시기, 특히

물질적, 정신적 여유가 있는 대학생들이 사회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Corrigall-Brown 2011; Earl & Elliott 2017; Van Dyke 1998; Zhao 1998). 그리하여 투표뿐 아니라 사회운동 참여까지도 고려한다면, 연령과 정치 참여의 관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Marien, Hooghe, & Quintelier 2010; Melo & Stockemer 2014).

정치 참여를 설명하는 기존 연구들에서 교육 수준 및 연령이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제기되기 어렵다. 하지만 정치 참여의 범위를 투표뿐 아니라 집회, 청원, 서명 등의 사회운동 참여로 넓히게 되면, 대표적인 사회·인구학적 요인인 교육 및 연령의 영향을 단선적으로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 기존 연구들의 경우, 제도화된 선거에 열심히 참여하는 개인들이 집회, 청원, 서명 등의 사회운동 역시 열성적으로 참여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기에 교육 및 연령의 정치 참여에 대한 영향이 참여의 양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민들의 다변화된 정치 참여 형태에 초점을 두고, 중요한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교육 수준 및 연령이 어떻게 여러 형태의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 및 공고화를 압축적으로 경험한 한국에서 개인들이 교육 수준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한 정치 참여의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도권 안팎을 넘나들며 전개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양상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제도정치에서의 투표 참여와 시위, 집회 등의 사회운동 참여를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 기존 연구들과 달리 정치 참여의 양태를 두 차원으로 조망함으로써 본 연구는 급변해 온 한국 정치에서 정치 참여의 양태에 영향을 미치는 세대 및 교육 수준의 효과를 보다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집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의 2022년 자료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정치 참여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분석은 크게 연령과 교육 수준, 그리고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여러 형태의 정치 참여 여부를 살펴보는 첫 단계, 그리고 분석대상을 각기 50대 이상의 장년층과 40대 이하의 청년층으로 나누어 교육 수준이 미치는 효과를 다른 각도로 조명하는 두 번째 단계로 구성된다. 분석의 결과, 연령 및 교육 수준에 따라 제도정치 내의 투표 참여와 제도정치 바깥의 사회운동 참여 사이에 차별화된 태도가 나타남을 살펴볼 수 있었다. 나아가, 연령대를 나누어 살펴본 결과에서는 교육 수준이 연령에

따라 정치 참여에 지니는 상이한 효과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며 시민들의 열성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역동성을 보여온 한국 정치를 세대 및 교육이라는 렌즈를 통해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민주화,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운동사회의 등장

민주주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형식적 차원과 시민들의 직접적 참여에 따른 시민 의사의 반영에 집중하는 실질적 차원으로 이루어진다(Linz & Stepan 1996; O'donnell, Cullell, & Iazzetta 2016). 한국 정치는 1987년에 권위주의 정권을 종식시키고 직접 선거를 통한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정치적 분기점마다 직접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통해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성공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화 이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등장 속에서 다양한 의제들이 시민단체 및 이를 직·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시민들에 의해 부상했다(이상·김효경·서찬석·신광영 2022; Koo 1993; Armstrong 2006). 한편으로는 선거를 통해 정치 권력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수차례 교체되면서 민주주의는 공고화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시위, 청원 등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시민들은 정치적 국면에서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고 정치적 갈등 과정에 역동성을 가미했다.

그리하여 한국 정치의 역동적인 성격은 단지 성공적인 제도적 민주화를 이루었다든가, 형식적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공고되었다는 것만으로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정치 권력 및 제도권 정당들과 구별되는 목소리를 내며 활성화된 시민사회 내에서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의 존재로 인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러 잡음들 속에서도 다채로운 모습을 띌 수 있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집합행동을 통해 시민사회에서 표출될 수 있고 그것이 다른 시민들로부터 이탈적이기보다는 관습화된 모습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서구의 안정적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운동사회’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전누리·신진욱 2024; Kim 2016). 한국에서 사회운동 참여와 같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형태의 정치 참여가 지닌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어떤 시민들이 직접적 정치 참여의 중심에 있는지, 어떤 속성을 지닌 시민들이 정치 참여에 더 친화적인지를 밝히는 것은 한국 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 2. 세대, 교육, 그리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

시민들의 정치 참여 양태를 결정하는 데에는 다양한 정치적, 심리적,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이 작동한다. 이는 또한 정치 참여의 유형이 투표와 같은 정치제도 내에서의 참여인가, 시위와 같이 정치제도 바깥에서 전개되는 형태인가에 따라 서로 다르다. 정치학에서는 주로 개인의 이념적인 성향이 급진적인지 아닌지, 또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에 따라 정치 참여의 양태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는데(Giugni & Grasso 2019; Jo 2022), 특히 기존 정부나 제도권 정당이 흡수하지 못하는 급진적인 이념 지향을 지니고 있을수록, 그리고 현상유지에 반대하는 진보적 성향을 지닐수록 정치제도 바깥에서 정치 참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반면에 보수적 이념 성향을 지닐수록 제도 내에서의 변화를 추구하여 제도적 정치 참여에 좀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심리학 연구에서는 시민으로서 지니는 정치에 대한 관심 또는 정치적 효능감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로 지목되어 왔다(김상돈 2007; Pharr & Putnam 2000; Putnam 2000; Van der Meer 2003). 로버트 푸트남을 비롯한 사회자본 연구자들은 시민들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형성하고 사회 또는 타인에 대한 신뢰를 축적하는 사회화 과정에 주목했다(Pharr & Putnam 2000; Putnam 2000; Van der Meer 2003). 그리하여 사회화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 또는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을 가지는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본인이 속한 정치 공동체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즉, 타인 및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지닌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좀더 심리학적인 설명으로는, 시민으로서 본인의 활동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효능감을 지닌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김한나 2016). 반대로, 이념적 성향이나 공동체에 대한 관심 및 신뢰 여부와는 상관없이 본인의 영향에 대한 효능감이 없는 이들은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 있다.

정치적, 심리적 요인들 외에도 사회학에서는 정치 참여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사회·인구학적 변수들로 개인의 연령 및 교육에 주목해 왔다(김기동·이재묵·이지영 2019; 류태진·차재권 2021; 서복경 2010; 이갑운 2008; Marien, Hooghe, & Quintelier 2010). 특히 연령이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제도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몰두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갖춰지면서 더 열성적으로 참여한다고 보고되어 왔다(Melo & Stockemer 2014). 하지만 반대로, 생애주기상 고령에 접어들면서 여타 경제적, 사회적 활동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참여의 강도 역시 약해진다고 지적되어 왔다(Nie, Verba, & Kim 1978). 한편 연령의 영향은 생애주기에 따른 생물학적 변화를 수반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꼭 공통된 경험을 공유하는 동일한 ‘세대’로서의 효과로 포착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정치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하고 활동했는지에 따라 연령의 영향은 상이할 수 있다. 짧은 시기에 민주주의로의 이행 및 공고화 과정을 경험한 한국의 특수성으로 인해 연령의 효과는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데(신진욱 2022), 개인이 어느 시대에 활동해 왔는지에 따라 정치 참여에 대한 태도가 상이할 수 있다. 특히 권위주의 정권에서 투표는 허용되었으나 제도정치 바깥의 사회운동은 불온시되었던 시기를 거쳤던 장년층 및 노년층의 경우에, 민주화 이후 사회운동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환경에서 성장한 청년층과는 상이한 정치 참여 양태를 보일 수 있다.

교육 수준은 정치 참여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이며(Marien, Hooghe, & Quintelier 2010; Nie, Junn, & Stehlik-Barry 1996), 많은 경험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어 왔다(Willeck & Mendelberg 2022; 김기동·이재묵·이지영. 2019; 서현진 2009; 정수현 2012). 교육이 정치 참여의 양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교육을 통해 정치 및 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때 정치 참여의 정도가 증가할 수 있다. 권위주의 정부에서도 제도 교육을 통해 문해력이 높아지고 국가 및 공동체에 대한 여러 시각들에 노출될 때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Lipset 1959). 반면에 사회운동 이론에서는 교육의 간접적인 효과에 주목하는데, 제도 교육의 직접적 효과보다는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이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 및 시간과 에너지의 증가로 인해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Corrigall-Brown 2011; McCarthy & Zald 1977; Van Dyke 1998; Zhao 1998). 생애사에 있어 청년의 시기, 특히 물질적, 정신적 여유가 있는 대학생들이 제도권 바깥의 정치 참여에 적극적이며, 사회에 진출한 후에도 당시에 축적된 정치 참여의

경험이 정치 참여의 양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Earl & Elliott 2017; Melo & Stockemer 2014). 즉, 대학교에서 배우는 학습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대학 시절의 생애사적 조건, 대학교 내에서 맺는 사회적 관계로 인해 정치 참여의 경험을 축적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에서는 높은 교육 수준이 정치 참여로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나아가 정치심리학적 연구들의 경우 정치적 관심 또는 효능감이 높은 개인일수록 다양한 형태로 정치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보통 특정한 개인적 특성이 투표를 비롯한 여러 양태의 정치 참여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제도정치에서의 투표 참여와 그 바깥에서의 집회, 청원, 서명 등 사회운동 참여의 질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 3. 이론 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어떤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이 개인들의 참여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연령에 따라 정치 참여의 양상이 상이할 것임에 주목한다. 다만 연령에 따른 생애주기 효과는 생물학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령과 정치 참여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 한국 사회의 정치적 환경 변화를 그 범위 조건으로 설정한다. 한국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짧은 시간에 민주화 및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경험한 국가로서, 서로 다른 정치적 환경에서 성장하고 활동한 이들은 각기 상이한 정치 참여의 양태를 보일 것으로 예측한다.

시민사회 내에서 사회운동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화 이전의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높은 비용을 동반하는 위험하고 일탈적인 행동으로 인지되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면서 시위, 서명, 청원 등의 사회운동 참여는 특별히 폭력적인 양상을 띠지만 않는다면 일상적이고 관례화된 레파토리(repertoire)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Meyer & Tarrow 1998; Rucht & Neidhardt 2002; Tarrow 2022). 사회운동사회의 출현 이후에 등장한 청년 세대는 비관습적 참여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그에 따라 공고화된 민주주의만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민주주의를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투표의 중요성을 덜 중요하게 인식하는 반면, 제도정치 바깥의 다변화된 정치 참여에 더

적극적이라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권위주의 정권에서부터 민주주의 공고화까지의 전 과정을 경험한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선거제도 및 투표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반면 제도정치 바깥의 정치 참여에 대해 소극적인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투표에 참여하는 등의 제도화된 정치 참여의 경우 높은 세대에 속한 개인일수록 더 적극적일 것으로 추정한다.

가설 1-1: 연령이 높을 수록 투표와 같은 제도정치 내에서의 정치 참여에 적극적일 것이다.

가설 1-2: 연령이 낮을 수록 청원, 서명, 집회 등을 통한 시민사회에서의 정치 참여에 적극적일 것이다.

교육의 경우, 교육 수준이 높은 개인은 교육 과정에서 누리는 직·간접적인 효과로 인해 정치 참여의 정도가 높을 것이다. 특히 개인에게 있어 교육은 교육의 내용 자체로 인해 본인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정치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한다. 나아가, 고등교육기관에 학생으로 속할 당시에 누리는 물질적, 정신적 여유 및 다른 학생들과 형성하는 인적 네트워크로 인해 정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하여 교육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참여의 형태가 어떠한 간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가설 2-1: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투표와 같은 제도정치 내에서의 정치 참여에 적극적일 것이다.

가설 2-2: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청원, 서명, 집회 등을 통한 시민사회에서의 정치 참여에 적극적일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 연령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교육 수준이 정치 참여의 양상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 수준이 높은 이들일수록 더 높은 정치 참여 정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세대와 교육이 교차하는 지점에서는 보다 복잡한 동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보통 사회운동사회에서 성장한 청년 세대와 달리 장년 세대에 속한 이들일수록 시위 및 집회 참여를 위협하고 일탈적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이와

는 반대로 선거와 같은 제도적인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규범적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행동으로 여길 것이다.

하지만 장년층 및 노년층에게 있어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여러 형태의 의사 표현에 익숙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 경향을 띠 수 있다고 본다. 즉, 일반적인 장·노년층의 정치적 열망이 투표를 통해서만 표출되는 반면, 교육을 받은 장·노년층의 경우 대학 교육을 통해 다변화된 참여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시민사회에서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공고화된 민주주의만을 경험한 청년층의 경우 투표 참여에는 더 소극적인 반면 사회운동 참여에는 더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았는데, 이에 더해 청년층은 공고화된 민주주의 아래에서 이미 다양한 의사표현 방식을 체득했기 때문에 사회운동 참여에 있어 대학 교육의 영향이 그렇게 뚜렷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투표 참여가 낮은 청년층의 경우에, 교육이 상대적으로 선거에 대한 낮은 정치적 관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여 투표 참여의 정도를 높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가설 3-1: 연령이 높은 개인들의 경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청원, 서명, 집회 등을 통한 시민사회에서의 정치 참여에 더 적극적일 것이다.

가설 3-2: 연령이 낮은 개인들의 경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투표와 같은 제도정치 내에서의 정치 참여에 더 적극적일 것이다.

### Ⅲ. 자료 및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및 변수

오늘날 한국 정치의 동학을 설명하는 하나의 단초로서 본 연구는 세대 및 교육이라는 핵심적인 사회·인구학적 속성이 어떻게 개인들의 정치 참여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3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이 수집해 온 사회통합실태조사의 2022년 자료를 이용했다.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는 다양한 형태의 정치 참여와 관련한 개인들의 참여 정도를 비롯해서 개인의 이념 성향, 지지정당 유무, 정치적 관심 정도, 정치 효능감 등의 정치·심리 변수, 그리고

세대와 교육 수준을 포함한 여러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담고 있어 본 연구의 가설들을 살펴보기에 효과적이다. 해당 자료는 만 19세 이상의 모든 성인(가구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다단계화 확률비례 추출(multi-stage proportionate probability sampling) 방식으로 표본을 구성했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 변수에 대한 결측치 76명을 제외하고 8,218명에 대해 분석했다

개인의 정치 참여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제도정치 내에서의 정치 참여로서 (1) 투표 참여 여부, 그리고 시민사회에서의 정치 참여로서 (2) 청원 참여, (3) 서명 참여, (3) 집회 참여 여부 및 의향을 종속변수로 설정했다. 세 가지 형태의 사회운동 참여는 하나의 종속변수로 통합하더라도 기본적인 분석결과에 차이가 없었다. 다만 청원 및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전통적인 형태의 집회 및 시위 참여에 비해 뒤따르는 비용이나 위험이 더 낮고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더 많다는 점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각각 나누어 분석을 실시했다.

투표 참여의 경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 참여했는지를 묻는 문항을 이용했고, 각각에서 참여했다를 1, 참여하지 않았다를 0으로 코딩한 후 합산하여 변수를 구성했다. 한편, 비해당(투표권 없음)에 응답한 경우는 본 연구의 모집단인 19세 성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했다. 시민사회에서의 정치 참여의 경우 청원 (탄원서/진정서/청원서) 참여, 서명운동 참여, 그리고 집회 (집회 및 시위) 참여의 세 유형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각각의 유형들에 대한 응답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지난 1년 동안 한 적이 있다가 3, 지난 1년은 아니지만 그보다 오래 전에 한 적이 있다가 2, 활동한 적은 전혀 없지만 향후 해볼 의향이 있다가 1, 활동한 적은 전혀 없으며 향후에도 할 의향이 없다가 0으로 코딩하였다. 참고로, 불매운동 변수의 경우 해당 자료에서 그것이 정치적 행동인지 혹은 소비자 운동인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포함한 후 분석하여도 결과는 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독립변수로 주목하는 것은 개인의 교육 수준과 연령이다. 교육은 정치 정보에 대한 문해력을 높이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킴으로써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Verba, Schlozman, & Brady 1995; Willeck & Mendelberg 2022). 교육 수준 변수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대학교 진학 이상’으로 구분한 이항 변수를 분석에 이용했으며, 무학(0)에서 박사 과정(7)까지의 7점 척도로 측정된 연속 변수의 경우에도 그 분석결과에 있어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의 경우,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민주주의로의 이행 및 공고화가 이루어

진 한국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 변수를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의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추가적으로 연령에 따라 다른 사회화 과정을 거쳐 다른 참여 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20대~40대(응답자의 51%)의 청년층과 50대~60대 이상(응답자의 49%)의 장년층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주요 독립변수 외에, 본 연구는 정치 참여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들로서 소득 수준, 성별, 그리고 지역을 분석에 포함했다. 기존의 경험 연구들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정치적 자원이 많아 정치 참여에 더 적극적임을 밝혔고(Schlozman, Brady, & Verba 2018) 효과는 한국에서도 확인되었다(권혁용·한서빈 2018; 김기동·이재묵·이지영 2019; 류태건·차재권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을 통제하기 위해 응답자의 세금공제 이전 월평균 가구 소득을 묻는 문항을 이용하여 소득 없음(0)에서 1,000만 원 이상(11)까지의 12점 척도로 측정했다. 성별의 경우 과거보다 그 중요성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정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Burns, Schlozman, & Verba 2001; Grasso & Smith 2022). 본 연구는 여성을 준거집단인 0, 남성을 1로 코딩하여 분석에 포함했다. 지역 변수는 응답자의 거주지역을 서울/경기, 경상, 충청, 전라, 강원/제주의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통제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정치·심리적 변수들도 함께 통제했다. 개인의 이념성향은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진보적 성향은 시위 및 집회와 같은 항의행동과 긍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Marsh 1990).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주관적 이념성향을 묻는 변수를 이용했으며, 해당 문항은 매우 보수적(1)에서 매우 진보적(5)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와 함께, 개인들이 나타내는 기존 정당에 대한 일체감,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그리고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시민들은 그렇지 않은 시민들에 비해 높은 참여 수준을 보여준다고 보고되어 왔다(Campbell 1980; Schlozman, Brady, & Verba 2018; 이재철 2007). 정당일체감의 경우 본 자료에서는 지지정당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여 없음을 0, 있음을 1로 측정했다. 정치관심도 변수는 4점 리커트 척도로서 평소에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묻는 변수를 사용했다. 정치효능감의 경우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정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 ‘나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 현안과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하여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의 네 항목을 사용했다.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더 큰 값을 가지도록 코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역코딩했으며, 각각 5점 리커트 척도인 네 변수들의 값들을 합산하여 지수를 구성했다. <표 1>은 본 연구 모형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기술통계치인 평균값과 표준편차, 최솟값과 최댓값을 보여준다.

<표 1> 핵심 변수들의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투표 참여	2.62	0.80	0	3	
청원 참여	0.52	0.94	0	3	
서명 참여	0.83	1.07	0	3	
집회 참여	0.62	0.97	0	3	
교육 수준	0.47	0.50	0	1	
세대	3.36	1.44	1	5	
소득 수준	5.20	2.24	0	11	
성별	0.50	0.50	0	1	
지역	서울·경기	0.51	0.50	0	1
	경상	0.25	0.43	0	1
	충청	0.11	0.31	0	1
	전라	0.10	0.30	0	1
	강원·제주	0.04	0.20	0	1
진보적 이념성향	2.92	0.85	1	5	
지지정당 유무(있음=1)	0.33	0.47	0	1	
정치관심도	2.39	0.64	1	4	
정치효능감	6.95	2.05	0	16	

아울러 <표 2>에서는 20대~40대의 청년층과 50대 이상의 장년층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두 집단 사이에 핵심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치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청년층의 경우 청원,

서명, 집회 등의 사회운동 참여에 있어 더 활발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 투표 참여에 있어서는 장년층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표 2> 핵심 변수들에 대한 청년층 및 장년층의 기술 통계 비교 (단위: 명)

	청년층(N=3,940)		장년층(N=4,27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투표 참여	2.42	0.94	2.83	0.53	
청원 참여	0.53	0.91	0.46	0.93	
서명 참여	0.88	1.06	0.69	1.04	
집회 참여	0.62	0.94	0.50	0.94	
교육 수준	0.72	0.45	0.20	0.40	
소득수준	5.47	2.00	4.33	2.32	
성별	0.52	0.50	0.47	0.50	
지역	서울·경기	0.34	0.47	0.28	0.45
	경상	0.29	0.45	0.31	0.46
	충청	0.17	0.38	0.17	0.37
	전라	0.14	0.34	0.16	0.37
	강원·제주	0.07	0.26	0.08	0.27
진보적 이념성향	3.19	0.71	2.67	0.91	
지지정당유무(있음=1)	0.23	0.42	0.41	0.49	
정치관심도	2.31	0.64	2.46	0.67	
정치효능감	7.11	2.09	7.01	2.12	

##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인 투표 참여 및 청원, 서명, 집회 참여 모두 서열형 변수이기 때문에 OLS 회귀분석의 기본적인 가정들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종속변수의 분포에 맞추어 서열형 로지스틱 회귀모형(ordered logistic re-

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종속변수의 편향을 고려해서 서열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더해 음이항 회귀모형(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을 이용할 경우에도 그 결과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었다.

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단계에서는 세대와 교육 수준, 그리고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여러 형태의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분석대상을 50대 이상의 장년층과 40대 이하의 청년층으로 나누어 교육 수준이 미치는 효과를 다른 각도로 조명하고자 했다. 세대 및 교육의 직접적 효과와 관련한 본 연구의 가설 1-1과 1-2, 그리고 가설 2는 첫 단계의 분석에서 검증하고, 세대와 교육이 교차하는 양상과 관련한 가설 3-1과 3-2는 두 단계에 걸친 분석을 거치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 IV. 분석결과

제도권 안팎에서 나타나는 여러 형태의 정치 참여에 있어 연령 및 교육 수준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첫 단계의 분석에서는 서열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교육 수준 및 연령의 직접효과, 그리고 두 변수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선 상호작용이 포함되지 않은 모델 1, 모델 3에서 연령의 영향은 정치 참여의 두 유형에 있어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투표 참여의 경우 연령이 열 살 증가할수록 참여의 승산비가 약 68% 증가한 반면, 서명 참여의 경우 같은 조건에서 약 11% 감소했고 집회 참여에서는 6% 줄어들었다. 청원 참여에 있어서는 연령이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연령과 정치 참여 사이의 관계를 예측한 가설 1-1과 가설 1-2는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교육 수준은 모든 형태의 정치 참여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학 진학 이상의 교육 수준일수록 투표, 청원, 서명, 집회 참여의 승산비가 각각 36%, 46%, 28%, 42%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 수준과 관련한 가설 2-1과 가설 2-2 모두 일관되게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표 3> 개인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서열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투표 참여		청원 참여		서명 참여		집회 참여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모델 7	모델 8
세대	0.520***	0.598***	-0.035	-0.090**	-0.103***	-0.147***	-0.057*	-0.106**
교육 수준	0.309***	0.839***	0.376***	0.016	0.249***	-0.047	0.351***	0.028
교육 수준 × 세대		-0.205**		0.115*		0.096*		0.104*
소득 수준	-0.010	-0.000	0.051**	0.045**	0.084***	0.078***	0.077***	0.071***
성별(기준=여성)	-0.062	-0.036	-0.007	-0.020	0.037	0.025	0.083	0.070
지역(기준=서울·경기)								
경상	-0.343***	-0.348***	-0.546***	-0.542***	-0.540***	-0.537***	-0.604***	-0.601***
충청	0.040	0.048	-0.223*	-0.227*	-0.449***	-0.452***	-0.543***	-0.546***
전라	0.282*	0.294*	-0.474***	-0.476***	-0.332***	-0.335***	-0.578***	-0.581***
강원·제주	1.124***	1.127***	0.156	0.150	0.174	0.170	-0.438**	-0.444**
진보적 이념성향	-0.025	-0.020	0.093*	0.089*	0.104**	0.101**	0.133***	0.130**
지지정당 유무(있음=1)	1.005***	1.014***	0.313***	0.308***	0.382***	0.378***	0.297***	0.292***
정치관심도	0.577***	0.582***	-0.010	-0.012	-0.067	-0.068	0.021	0.020
정치효능감	-0.019	-0.016	0.052**	0.050**	0.065***	0.063***	0.046**	0.045**
Log Pseudolikelihood	-29071512	-29020334	-37621287	-37599067	-48386308	-48366870	-42271602	-42251491
N	8,218	8,218	8,218	8,218	8,218	8,218	8,218	8,218

\*\*\* $p < 0.001$ , \*\* $p < 0.01$ , \* $p < 0.5$ .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정치 참여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연령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 착안하여, 교육과 연령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어떻게 정치 참여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가에 대해 분석했다. 우선 모델 2에서 교육 수준은 낮은 연령의 개인들에 있어 투표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호작용 효과에서 나타난 바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의 효과가 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이 제도정치 안에서의 투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2의 예측을 지지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모델 4, 모델 6, 그리고 모델 8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은 연령의 개인들에 있어 일관되게 시민 사회에서의 정치 참여에 대해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교육 수준이 사회운동을 통한 정치 참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세대가 높아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가설 3-1을 지지하는 것이다.

통제변수의 경우, 개인의 소득은 투표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지만 청원, 서명, 집회 참여에는 유의미하게 양의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 수준이 시민사회에서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운동 참여가 투표와 같은 제도적 참여보다 더 많은 자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이 더 클 수 있다는 기존의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Marien, Hooghe, and Quintelier 2010). 한편 성별 변수는 네 가지 유형의 참여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성별의 경우 과거에는 남성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그러한 경향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이러한 흐름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진보적 이념 성향을 띠는 경우에는 사회운동을 통한 정치 참여에, 지지당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참여 유형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치관심도는 투표 참여에 있어서만, 정치효능감은 사회운동 참여에 있어서만 각기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심리적 요인의 효과를 강조한 심리학적 관점의 설명이 참여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치관심도 및 정치적 효능감의 정도가 연령 및 교육의 매개변수일 가능성을 고려해서 정치·심리적 변수들을 제외한 모형과 포함시킨 모형의 결과를 비교했는데, 이들 변수들을 포함시킬 때 연령 및 교육 변수의 효과크기가 소폭 감소하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 참여에 대한 교육의 효과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40대 이하의 청년층과 50대 이상의 장년층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을 장년층에 국한해서 보면, 교육 수준은 모델 9, 11, 13, 15에서 나타나듯이 시민사회에서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만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달리 청년 세대에서는 모델 10, 12, 14, 16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교육이 투표 참여 뿐 아니라 청원 및 집회 참여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앞선 분석에서도 나타난 바 가설 3-1과 가설 3-2, 즉 연령이 낮더라도 교육 수준이 높으면 투표를 통한 정치 참여에 적극적이며 연령이 높더라도 역시 교육 수준이 높으면 사회운동을 통한 정치 참여에 열성적이라는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편 소득 수준의 경우 <표 3>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회운동 참여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청년 세대와 장년 세대 모두에게 해당되었다. 반면에 성별은 역시 앞선 분석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갖지 않았다. 지지정당이 존재하는 경우 청년층과 장년층 모두가 다양한 형태의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정치·심리적 변수들 중에서 정치관심도는 청년 및 장년의 투표 참여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에, 정치효능감의 경우는 <표 3>에서의 결과와 달리 사회운동 참여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과 <표 4>의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를 통한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운동을 통한 정치 참여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육 수준은 투표 및 사회운동 참여에 있어 일관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장년층에 속한 이들에게 있어 고등교육의 경험은 사회운동 참여 경향을 높이고 청년층의 경우에는 투표 참여의 적극성으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장년층 및 청년층의 정치 참여에 대한 서열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투표 참여		청원 참여		서명 참여		집회 참여	
	모델 9: 장년	모델 10: 청년	모델 11: 장년	모델 12: 청년	모델 13: 장년	모델 14: 청년	모델 15: 장년	모델 16: 청년
교육 수준	-0.105	0.539***	0.367***	0.177*	0.301***	0.114	0.321***	0.206**
소득수준	-0.033	0.014	0.076***	0.049**	0.104***	0.069***	0.084***	0.071***
성별(기준=여성)	-0.153	-0.043	0.001	0.071	-0.026	0.053	0.007	0.193**
지역(기준=서울·경기)								
경상	-0.595***	-0.393***	-0.548***	-0.499***	-0.509***	-0.415***	-0.500***	-0.695***
충청	-0.021	-0.250*	-0.317**	-0.034	-0.410***	-0.428***	-0.474***	-0.457***
전라	0.351	0.266*	-0.568***	-0.359**	-0.401***	-0.315**	-0.507***	-0.620***
강원·제주	1.169***	0.874***	0.234	0.081	0.322**	0.010	-0.226	-0.614***
진보적 이념성향	-0.161*	-0.154**	0.111***	-0.018	0.063	0.064	0.154***	0.028
지지정당 유무(있음=1)	0.568***	1.176***	0.283***	0.480***	0.386***	0.438***	0.344***	0.397***
정치관심도	0.397***	0.698***	0.024	-0.031	0.114*	-0.036	0.105	0.073
정치효능감	-0.031	0.047**	0.022	0.007	0.042*	-0.000	0.028	0.017
Log Likelihood	-1857	-3608	-3366	-3589	-4313	-4696	-3612	-3962
N	4,278	3,940	4,278	3,940	4,278	3,940	4,278	3,940

\*\*\* $p < 0.001$ , \*\* $p < 0.01$ , \* $p < 0.5$ .

## V. 결론 및 함의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한국 정치의 민주적 이행 및 공고화 과정의 중심에 있었다.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없이 한국 정치의 지속적인 발전과 진화를 설명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시민 중에서도 누가 정치에 참여하는지, 연령과 교육은 어떻게 시민들의 다변화된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투표를 통한 제도정치 내에서의 참여와 청원, 서명, 집회와 같은 시민사회 내에서의 참여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운동이 일상화된 시기에 성장하고 활동한 청년층은 투표 참여에 덜 적극적인 반면 사회운동을 통한 정치 참여에 유의미하게 참여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정치 참여에 있어 교육의 효과 역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교육 수준이 높은 이들은 모든 형태의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교육의 영향을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높은 교육 수준은 장년층에 있어 사회운동을 통한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청년층에 있어서는 투표를 통한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 양상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의 영향이 단선적이지 않고 연령 및 정치 참여의 양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국 정치가 민주화 및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에서 보여준 역동성을 설명하는 데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장·노년층은 사회운동과 같은 비관습적인 정치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권위주의 사회에서 성장한 이들은 선거와 같은 제도정치 내의 참여에 적극적인 것과는 달리 제도정치 바깥의 사회운동 참여를 일탈적인 것으로 인식하며 그에 뒤따르는 비용에 민감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 연령이 높더라도 교육 수준 역시 높을 경우에 오히려 사회운동과 같은 시민사회 내에서의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 한국 정치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다. 고등교육의 경험에 따라 형성된 높은 정치적 역량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운동의 정치적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집합행동의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 다수의 정치적 무관심이 불러올 수 있는 정치적

해약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본 연구는 또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해 온 동학을 이해하는 데 여러 함의를 준다. 무엇보다, 청원, 서명, 집회 등의 사회운동을 통한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 시민들이 오늘날의 청년층이라는 점은, 향후 한국 정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그동안 청년층의 투표 참여가 낮은 것에 대한 여러 우려가 존재했으나, 그들은 공고화된 민주주의에서 성장하면서 투표가 아닌 직접적인 방식의 정치 참여에 능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층의 이같은 특성은 한국 사회가 앞으로도 사회운동사회로 더욱 변모해 나갈 것임을 예측케 한다. 물론 다양한 양태의 정치 참여가 일상화되고 보편화되었다는 사실이 긍정적인 결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무관심 및 불신의 증대가 초래하는 정치적 위기만큼이나, 왜곡된 방식의 정치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적 양극화 및 당파 사이의 적대감도 오늘날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Del Vicario et al. 2016; Koo et al. 2024).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온라인 기반의 정치 활동에서도 개인들은 반향실 효과(echo-chamber effect)하에서 당파적 편견만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Cinelli 2021). 그리하여 해결되지 못한 숙제들은 여전히 남지만, 그럼에도 시민들이 정치적 무관심에 머무르기보다 적극적인 참여의 양상을 보인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오늘날 시민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 교육이라는 렌즈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교육 기회의 확대는 한 사회의 중간 계급을 두텁게 하고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는 요인으로 주목되어 왔다(Lipset 1959).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도 교육의 경험은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고 집합행동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기존 연구들은 밝히고 있다(서현진 2009; 정수현 2012). 여기서 본 연구는 교육의 영향이 보다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드러낸다. 장년층에게 있어 높은 교육 수준은 투표 참여의 빈도를 낮추면서 사회운동 참여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또한 청년층에 있어서도 높은 교육 수준은 적어도 소극적이라고 알려져 있던 투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장년층이든 청년층이든 간에 정치 참여의 양태를 보다 다변화하는 데 교육이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한국 정치 및 시민사회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의 불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 이론적, 현실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뚜렷한 한계를 노정

하고 있다. 우선 분석자료의 특성상 여러 형태의 정치 참여를 살펴볼 때 그 의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개인이 참여한 집회, 시위, 청원 등의 이념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에 참여의 양태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선거로 대표되는 제도적 참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묻는 대신 투표라는 행위 여부만을 주목했기에 정치 참여의 내용을 알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둘째로, 보다 장기적인 시계열 분석을 통해 민주주의로의 이행 및 공고화의 전 시기를 걸쳐 각 세대들이 어떠한 참여 양태를 보여왔는지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횡단분석의 특성상 세대 효과와 연령 효과를 구분할 수 없었기에 연령의 영향에만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시계열 분석을 바탕으로 연령, 시기, 세대의 효과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APC(Age, Period, Cohort) 분석을 활용하여(Grasso 2014; Grasso et al. 2019) 각기 나름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했던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 그리고 그 후의 이른바 X세대와 MZ세대 사이의 차이를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정치에 참여하는 개인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교육 효과의 정확한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이 제도 교육을 통해 정치적 관심 및 역량을 높임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메커니즘에 주목했으나, 대안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령 및 교육이라는 렌즈를 통해 한국 정치 및 시민사회의 역동적 변화를 가능케 하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 양상을 규명했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권혁용·한서빈. 2018. “소득과 투표참여의 불평등: 한국 사례 연구 2003-2014.”《정부학 연구》 24(2): 61-84.
- 김기동·이재묵·이지영. 2019. “비관습적 정치 참여는 투표참여를 대체하는가, 보완하는가?”《한국정당학회보》 18(1): 29-64.
- 김상돈. 2007. “정치 참여의 인과구조에 대한 한·미·일 국제비교연구: 비정치적 결사체가입의 매개효과분석: 비정치적 결사체가입의 매개효과분석.” 《한국사회학》 41

(1): 221-255.

- 김선혁·김병국·제고르즈 에키투. 2007.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와 시민사회: 향의의 정치를 중심으로: 향의의 정치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50(3): 128-148.
- 김성연. 2015. “한국 선거에서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정책 선호와 사회경제적 배경: 2012년 양대 선거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22(4): 41-67.
- 김한나. 2016. “정치 참여의 다양성과 심리적 조건: 내적효능감과 정부신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Journal of Korean Politics)》 25(1): 81-110.
- 류태건·차재권. 2021. “지난 40년간 한국의 정치향의의 사회적·집단적 변화추이와 그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55(5/6): 35-68.
- 서복경. 2010. “투표불참 유권자 집단과 한국 정당체제.” 《현대정치연구》 3(1): 109-129.
- 신진욱. 2022. 《그런 세대는 없다》 서울: 개마고원.
- 이갑윤. 2008. “한국선거에서의 연령과 투표참여.” 《의정연구》 14(2): 93-115.
- 이상·김효경·서찬석·신광영. 2022. “민주화와 시민사회, 그리고 정신장애 인권운동의 등장.” 《민주주의와 인권》 22(2): 5-35.
- 이재철. 2007. “정치문화와 투표행위: 5.31 지방선거에 나타난 인지적, 정서적, 평가적 정향과 투표참여.” 《한국과 국제정치》 23(2): 93-121.
- 전누리·신진욱. 2024. “한국에서 집단적 항의행동의 확산과 ‘분쟁사회’의 격화: 집회·시위 참여자의 이념적 양극화와 정치적 당파성, 2013-2022.” 《한국사회학》 58(1): 53-97.
- 한국행정연구원. 2022.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 홍성태. 2017. “사회운동의 폭력성 구조화: 억압과 저항의 폭력적 상호작용, 1960-1987년.” 《경제와사회》 115: 183-211.
- Armstrong, C.K. 2006. *Korean Society: Civil Society, Democracy and the State* (2nd ed.). Routledge.
- Brady, H.E., S. Verba, and K.L. Schlozman. 1995. “Beyond SES: A Resource Mod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2): 271-294.
- Burns, N., K.L. Schlozman, and S. Verba. 2001. *The Private Roots of Public Action: Gender, Equalit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ampbell, A. 1980. *The American Vot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inelli, M., De Francisci Morales, G., A. Galeazzi, W. Quattrociocchi, and M. Starnini. 2021. “The Echo Chamber Effect on Social Media.”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8(9): p.e2023301118.

- Corrigan-Brown, C. 2011. *Patterns of Protest: Trajectories of Participation in Social Movements*. Stanford University Press.
- Del Vicario, M., A. Bessi, F. Zollo, F. Petroni, A. Scala, G. Caldarelli, H.E. Stanley, and W. Quattrociocchi. 2016. "The Spreading of Misinformation Onlin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3(3): .554-559.
- Earl, J., T.V. Maher, and T. Elliott. 2017. "Youth, Activism, and Social Movements." *Sociology Compass* 11(4): e12465.
- Grasso, M.T. 2014. "Age, Period and Cohort Analysis in a Comparative Context: Political Generation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Repertoires in Western Europe." *Electoral Studies* 33: 63-76.
- Grasso, M.T., S. Farrall, E. Gray, C. Hay, and W. Jennings. 2019. "Socialization and Generational Political Trajectories: An Age, Period and Cohort Analysis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Britain." *Journal of Elections, Public Opinion and Parties* 29(2): 199-221.
- Grasso, M. and K. Smith. 2022. "Gender Inequalities i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ngagement among Young People in Europe: Are Young Women Less Politically Engaged than Young Men?" *Politics* 42(1): 39-57.
- Jo, Jinhee. 2022. "Partisan Polarization in Korea: Ideology, Perception, Affect, and Participation." *Korea Observer* 53(1): 1-24.
- Kim, S.C. 2016. *Democratization and Social Movements in South Korea: Defiant Institutionalization*. Routledge.
- Koo, H. (ed.) 1993.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Cornell University Press.
- Koo, J.W., C.S. Suh, J.W. Chung, K.A. Sohn, and K. Han. 2024. "The Hatred of All against All? Evidence from Online Community Platforms in South Korea." *Plos One* 19(5): e0300530.
- Linz, J.J. and A. Stepan. 1996.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ipset, S.M. 1959.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Legitim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3(1): 69-105.
- Marien, S., M.Hooghe, and E. Quintelier. 2010. "Inequalities in Non-Institutionalised Form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 Multi-level Analysis of 25 Countries." *Political Studies* 58(1): 187-213.
- Marsh, Alan. 1990. *Political Action in Europe and the USA*. London: Macmillan.

- Melo, D.F. and D. Stockemer. 2014. "Ag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Germany, France and the UK: A Comparative Analysis." *Comparative European Politics* 12: 33-53.
- Meyer, D.S. and S.G. Tarrow (eds.). 1998. *The Social Movement Society: Contentious Politics for a New Century*. Rowman & Littlefield.
- Nie, N.H., J. Junn, and K. Stehlik-Barry. 1996. *Education and Democratic Citizenship in Americ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erba, S., Nie, N.H. Nie, and J. Kim. 1978.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quality: A Seven-Nation Compari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orris, P. (ed.). 1999.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OUP Oxford.
- O'donnell, G., J.V. Cullell, and O.M. Iazzetta (eds.). 2016. *The Quality of Democracy: Theory and Applications*.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Pharr, S.J. and R.D. Putnam (eds.). 2000. *Di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cht, D. and F. Neidhardt. 2002. "Towards a 'Movement Society'? On the Possibilities of Institutionalizing Social Movements." *Social Movement Studies* 1(1): 7-30.
- Schlozman, K., H. Brady, and S. Verba. 2018. *Unequal and Unrepresented: Political Inequality and the People's Voice in the New Gilded 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in, J.W. 2021. "New Waves of Civic Participation and Social Movements in South Korea in the 21st Century: Organization, Configuration and Agency." *Korea Europe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Politics, Society, and Economics* 1: 1-12.
- Shin, G. and P. Chang (eds.). 2011. *South Korean Social Movements from Democracy to Civil Society*. Routledge.
- Soule, S. and J. Earl. 2005. "A Movement Society Evaluated: Collective Protest in the United States, 1960-1986." *Mobilization: An International Quarterly* 10(3): 345-364.
- Suh, C.S. 2019. "More than Words: Legal Professional Activism and the Prevention of Torture in South Korea." *Human Rights Quarterly* 41: 646-671.
- Suh, C.S., P.Y. Chang, and Y. Lim. 2012. "Spill-Up and Spill-Over of Trust: An Extended Test of Cultural and Institutional Theories of Trust in South Korea." *Sociological Forum* 27(2): 504-526.
- Van der Meer, Job. 2003. "Rain of Fog? An Empirical Examination of Social Capital's

Rainmaker Effects,” pp. 133-152 in Marc Hooghe and Dietlind Stolle (eds.): *Generating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Institu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Van Dyke, N. 1998. “Hotbeds of Activism: Locations of Student Protest.” *Social Problems* 45(2): 205-220.

Verba, S., K.L. Schlozman, and H.E. Brady.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Harvard University Press.

Willeck, C. and T. Mendelberg. 2022. “Educ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5: 89-110.

Zhao, D. 1998. “Ecologies of Social Movements: Student Mobilization during the 1989 Prodemocracy Movement in Beijin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6): 1493-1529.

<접수 2024.04.25; 수정 2024.05.17; 게재확정 2024.07.04>

## **Who Participates in Politics and How? Age, Education, and the Different Forms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South Korea**

Shin Haeng Lee

(Chung Ang University)

Chan S. Suh

(Chung Ang University)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in politics has been one of the driving forces of the transition to and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South Korea.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various form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rein focuses on how one's age and level of education affect their engagement in politics. Challenging the notion that a high level of education leads to high level of participation, we explore the possibility that the effects of one's age and education level differ across various forms of participation. Using the 2022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 our analysis yields three interesting findings. First, older population tends to more actively participate in voting while younger population is more likely to engage in activism outside institutional politics. Second, education increases political participation of any sort. Third, one's level of educat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activism for the elderly and voting for the youth.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f how citizens differentially engage in politics in South Korea.

Key words: age, democracy, democratization, education, political participation, social movement